

전기계 소식

한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청 자금 지원으로 개발되는 신제품 2년간 구매

한전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적극 나섰다.

한전은 16일 오전 본사에서 강동석 사장과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청 자금 지원으로 개발되는 배전분야 전력기자재 신제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협약' 을 중소기업청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개발업체로 확정되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총 개발비의 75%(2억원 한도)까지 지원받게 되며, 특히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해당 신제품에 대해서는 한전이 2년 동안 구매하게 된다.

한전은 내년 1월부터 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는 등 본격 시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은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와는 별도로 이번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의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따르는 업체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게 된다.

한전, 국제금융 분야 아시아 최고 기업에 선정

- 「The Asset magazine」이 선정한 국제금융 분야 2개 부문 최고상 수상

한전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권위 있는 국제금융잡지 「The Asset magazine」 12월호가 선정한 'Best in Liability Management' 상과 'The Most Innovative Deal' 상을 수상했다.

'Best in Liability Management' 상은 외화부채관리부문 최우수기업에게 주는 단 2개 부문 중 하나의 상이다.

한전은 지난 2001년 이후 '환위험 관리지침' 을 자체 제정하고 매년 초 연간 목표 EaR(Earnings at Risk)을 설정하는 한편, 분기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환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위험을 관리해 왔다.

특히 금년에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화 상환 대비 조달액을 당초 16억 3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줄여 전체 차임금 중 외화 비중을 낮추고, 3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원달러 '스왑' 등 파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등 환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는데, 이에 따른 기술적 측면이 높이 평가되어 이 상을 수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The Most Innovative Deal' 상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된 가장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한전이 지난 11월에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280억 엔(2.6억불 상당)의 '자사주 대상 엔화표시 해외 교환사채'가 수상의 직접 원인이 됐다.

특히 발행 조건에 있어 만기 5년, 전환가격 30,000원, 금리 마이너스 1.7%로 국내 해외채권 사상 최저금리로 발행되었을 뿐 아니라 거래방식에 있어서도 발행조건 선 결정 후 계약서류를 사후 작성하는 방식을 택해 이번에 우수 금융상품에 선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he Asset magazine』은 홍콩에서 발행되는 저명한 국제금융잡지로, 공인된 월간 발행 부수가 15,000부에 달하며, 아시아 지역 국가와 기업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주식에 투자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잡지로 해마다 국제 금융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아시아 기업을 골라 'Asset Asian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한전, 미얀마 송·변전분야 기술용역사업 계약 체결

- '전력망 진단사업'에 이어 미얀마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 마련

한전이 미얀마 송·변전분야 설계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송전선로 건설 등 후속사업 진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2월 5일 한국국제협력단과 11억 6천만 원(미화 100만 달러) 규모의 '미얀마 500kV 송전선로 기본설계' 등 기술용역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전은 내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 동안에 걸쳐 미얀마의 장기 계획수립은 물론 500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및 현지 기술인력 연수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해에 '미얀마 전력망 진단사업'의 성공적 완수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 등 후속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아직 미 개방 상태인 미얀마 전력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얀마의 발전시설 용량은 약 110만kW로 우리나라에 비해 2% 수준이며, 송·배전 손실률은 35.19%에 달해 우리나라의 4.5%와 비교할 때 전력설비 및 기술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향후 전력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이 예상된다.

전력거래시장 참여자 지속 증가

- 2003년 말 현재 총 44개 전기사업자가 발전경쟁시장에 참여

2003년 말 현재 발전경쟁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고 있는 전기사업자가 총 44개로 증가했다.

이는 2001년 4월 전력시장 개설 당시에 비해 37개가 늘어난 것이며, 특히 지난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9개와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 4개 등 19개 사업자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 참여 발전설비 용량도 2003년 중 545만kW가 증가하여 5,692만kW(국내 총 발전설비의 약 94%)로 늘어나 시장개설 당시에 비해 26.7%, 2002년 말에 비해 10.6%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 실적을 보면, 거래량은 2,995억kWh, 정산금액은 14조5,717억 원으로, 평균 정산단가는 48.66원/kWh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전력수요 증가와 그 동안 한전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던 사업자의 시장 참여 등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고, 정산대금은 거래량 증가와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발전회사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총거래량의 42%를 차지했고, 발전원별로는 원자력 및 석탄(국내탄 포함)이 81%를 점유했다.

2003년 전력소비 전년대비 5.4% 증가

- 12월중 전력소비는 3.5% 증가한 262억kWh

2003년 총 전력소비량(1~12월 누계)은 2,936억kWh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율이 4.4%로 낮았으며, 여름철 냉방용 전력소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월중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62억kWh로, 2003년 1월(264억kWh) 이후 가장 많은 소비량을 기록했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2002년 12월의 증가율(10.3%)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난방용 전력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계약종별로는 산업용이 4.7% 증가한 139억kWh(전체의 53.1% 점유)를 소비하였으며, 주택용은 0.2% 증가한 60억kWh, 일반용은 6.1% 증가한 53억kWh를 소비했다.

전기계 소식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신규 공모 발표

- 주민투표를 거쳐 연말까지 후보 부지 선정

- 부지조사 단계부터 건설 및 운영까지 제도적으로 주민 참여 보장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10일 발표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추진 보완 방침'에 따라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의 신규 유치 공모에 관한 공고를 2월 4일 발표했다.

위도를 후보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주민투표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여 '주민자치 원칙'을 보장하며, 새로운 절차 도입에 따라 부안 이외의 지역에도 유치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

신규 공모 절차는 ①주민 유치 청원(5. 31) ②주민의견 수렴 및 예비 신청(9. 15) ③주민투표 및 본 신청(11. 30) ④심사(부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후보 부지를 선정(12. 31)하며, 주민투표는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하되, 주민투표법 시행 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주민 투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부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지조사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 단계까지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용 후 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은 금번 공모로 선정되는 후보 부지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기술·우수품질 인증업체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 NT, EM 인증제품의 판로개척 및 수출 증대 도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제품의 수요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국내 5개와 해외 4개 전문전시회에 신기술인증제품관을 설치하여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국내외 출품 전시회명 및 전시기간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서울국제공작기계전 : 4. 7~ 4. 12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 : 5. 11~ 5. 14

국제섬유기계전시회 : 5. 11~ 5. 14

국제자동차정밀기계전 : 9. 2~ 9. 5

한국전자전 : 10. 6 ~10. 10

● 해외

중국 제냉전 : 4. 7~ 4. 9

독일하노버 산업박람회 : 4. 19 ~ 4. 24

COMDEX : 11. 15 ~11. 18

중국상해기계전 : 11. 29 ~12. 2

● 전시회 출품 규모 : 140개 업체

전시회 선정은 NT·EM 인증품목 구성비가 많은 기계류 및 전자분야의 전시회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분야별 대표 전시회 중 국제적인 지도가 높은 5개 전시회를, 국외적으로는 2003년도의 국가별 수출 실적을 고려하여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 순으로 중국에 2개 전시회 미국에 1개 전시회, EU지역에 1개 전시회를 선정했다.

산업자원부는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수입 대체 효과를 증대 시키고, 국외적으로는 수출 기반 확보 및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난방요금 4.81% 인하

- 2월 1일부터 지역난방공사 등 4개 사업자 100만 세대 적용

산업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4개 지역난방사업자들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100만 세대에 대한 지역난방요금이 2004년 2월 1일부터 4.81% 인하(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5.38%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반기 연료비 실적을 열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정기적인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열요금 조정은 2003년 2월 미-이라크 전쟁 종식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LSWR(저유황옥스유), B-C유 등 유류가격이 하락하여 2003년 상반기에 비하여 2003년 하반기 연료비가 감소한 것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역난방요금 인하로 총 지역난방공급 가구 수 1,240천호 가운데 전기 6개월간의 유가연동제를 따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주), LG파워, 인천공항에너지 등 4개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993천호(전체 지역난방 가구의 80%)가 4.81%의 요금 인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LNG가격에 연동하여 지역난방요금이 수시 조정되는 서울시 20만 세대, 부산시 3만 세

대는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요금 인하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난방비가 69만 8,000원에서 66만 4000원으로 약 3만 4,000원(2,800원/월)의 난방비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외국인 투자가, 국내 투자(경영)환경에 대해 긍정적 평가

Invest KOREA가 작년 12월 114개 외국인 투자기업 CEO(설문지 조사, 952개사 중 114개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사관계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거나, 적어도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어도 향후 2~3년 내 한국에서의 투자 확대 가능성(증가 33.4%, 감소 21.1%)과 비즈니스 전망(낙관적 37.8%, 비관적 30.7%)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한편, 산자부와 Invest KOREA가 작년 10월 Hub KOREA 행사에 참가한 다국적 기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5% 이상이 향후 2~3년 내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작년 9월 A.T. Kearney사가 전 세계 FDI의 90%를 차지하는 1,000개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미래 투자 전망을 나타내는 FDI 신뢰지수(FDI Confidence Index)가 2002년 21위에 비해 2003년에는 18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인식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신노사 문화의 형성,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계획'을 외국인 기업 및 단체 대표,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 하에 수립하였고,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추진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투자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외국인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민관이 함께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긍정적 홍보를 강화해 나갈 때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